

한국어의 사·피동문 처리에 관한 연구 : 실어증 환자의 처리 양상을 바탕으로

문영선*, 김동휘**, 남기춘***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The Processing of Causative and Passive Verbs in Korean

*Youngsun Moon(sunny723@hanmail.net),
Donghee Kim(rmkdh@chollian.net), *Kichun Nam(kichun@mail.korea.ac.k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사·피동문을 실어증 환자가 처리하는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사·피동문은 용언에 파생접사가 붙어 이루어지는 경우와 '-게 하다'나 '-어 지다'와 같이 구문 변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파생접사가 붙은 사·피동문을 대상으로 하여, 실어증 환자에게 실험을 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환자는 명칭성 실어증 환자, 이해성 실어증 환자, 표현성 실어증 환자, 전반성 실어증 환자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실험에서는 단어 채워 넣기 과제(word completion task)를 사용하였다. 명칭성 실어증 환자의 경우 피동에서는 처리 오류를 보이는 반면, 사동에는 아무런 문제도 보이지 않았다. 표현성 실어증 환자와 전반성 실어증 환자의 경우,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표현성 실어증 환자의 경우, <피동-비변형>에서 오류를 많이 보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의 사·피동은 영어와 달리 통사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이미 사·피동 접사에 의해 파생된 단어가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고, 각 단어의 논항 정보에 따라 문장이 생성되는 것이다. 표현성 실어증 환자가 피동의 비변형에서 지배적인 오류를 보이는 것은 피동의 비변형이 타동사로서 변형인 피동형에 비해 하나의 논항을 더 취하기 때문이다. 이해성 실어증 환자의 경우 사·피동 생성에 별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이해성 실어증 환자가 개별 어휘의 논항 정보에 손실을 적게 입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유형을 보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의 사·피동의 처리양상을 대조한 결과, 첫째 사·피동은 서로 다른 통사, 의미상의 처리 양상을 보이고 있고, 둘째 파생접사가 결합된 형태로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는 개별 사·피동사에 의해 형성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사동(使動)과 피동(被動)은 동사의 태(態)로서 다루어지기도 하고 동사의 한 종류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동은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표현이고, 피동은 남의 행동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입는 표현이다. 사동과 반대가 되는 표현으로는 주동(主動), 피동과 반대가 되는 표현으로는 능동(能動)이 있다.

- (1) ㄱ. 동생이 문 뒤에 숨었다. (주동)
 나. 누나가 동생을 문 뒤에 숨겼다. (사동)
- (2) ㄱ. 포수가 토끼를 잡았다. (능동)
 나. 토끼가 포수에게 잡혔다. (피동)

(1)의 ㄱ과 나 은 주동과 사동, (2)의 ㄱ과 나 은 능동과 피동을 보여주는 예이다.

- (3) ㄱ. 동생이 문 뒤에 숨었다. (주동)

- ㄴ. 동생을 문 뒤에 숨게 했다. (사동)
- (4) ㄱ. 많은 사람이 그 노래를 불렀다. (능동)
- ㄴ. 그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다. (피동)

(1-ㄴ)은 사동사에 의한 사동법이고, (3-ㄴ)은 '-게 하다'에 의한 사동법이다. 마찬가지로 (2-ㄴ)은 피동사에 의한 피동법, (4-ㄴ)은 '-어지다'에 의한 피동법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 사동과 피동은 '-이', '-히', '-리', '-기'와 같은 파생접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남기심(1985)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엄밀하게 말해서, 파생접사에 의한 사동이나 피동은 문법적인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는 활용어미가 아닌 접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영어와 달리 국어의 모든 동사가 체계적으로 사동이나 파생과 대응되는 것도 아니다¹⁾.

국어 사피동에 관한 연구는 변형문법 시대 이전에는 주로 형태론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김차균(1980)은 어휘적으로 파생된 사동사를 사동 접사가 동사 어간에 밀착되어 형성된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보았다. 또한 피동문에 대한 통사론적 논의는 능동문과 관계를 중심으로 변형의 관점과 어휘의 관점이 대립되었다.

우선 사동에 관한 주요 논점을 살펴보면 국어의 단형 사동과 장형 사동의 동의성에 관한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 (5) ㄱ. 철수가 영회를 웃겼다. (단형 사동)
- ㄴ. 철수가 영회를 웃게 했다. (장형 사동)

(5-ㄱ)은 국어의 단형 사동, (5-ㄴ)은 장형 사동이다. 단형·장형 사동문의 통사 구조에 대해서는 이 두 사동문의 기저 구조를 동일하게 복문 구조로 보는 견해(양인석 1972, 서원임 1974, 이정민 1974 등)와 단형 사동은 단문 구조, 장형 사동은 복문 구조로 보는 견해(Shibatani 1973, 박병수 1974, 송석

중 1978)이 있다. Lee(1970)은 장형 사동과 단형 사동의 동일기저설을 주창하면서 이행동사(performative verb)를 사동문의 심층구조에 설정하여 사동요소인 '-이'를 상위문을 술어로 보았다.

한편 피동에 관한 주요 논점으로는 변형의 관점과 어휘의 관점이 있다. 송석중(1967)에서는 피동 변형 규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능동문이 피동문이 되기 위해서는 명사구 이동, '에게/에 의하여' 성분, 피동사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 김석득(1969), 신경구(1982)에서는 이러한 규칙을 '-어 지다', '되다' 구성에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피동 규칙에 따른 변형론은 어휘론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어휘론자들은 피동 변형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예를 통하여 피동을 어휘부의 파생어 규칙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 (6) ㄱ. 나무등치가 창수에게 감기였다.
- ㄴ. [?]풀이 열심히 베어였다.
- ㄷ. 날씨가 풀렸다.

(6-ㄱ)은 '창수에게'가 행동주 외에 처소로 해석될 수 있고, (6-ㄴ)은 행동주의 의도와 관련된 부사를 피동문에 그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를 보이는 예이다. (6-ㄷ)은 이와 관련된 능동문을 설정하기 힘든 예이다. 특히 양화사나 부정과 관련된 문장은 능동문과 피동문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피동과 사동은 그 통사·의미상의 차이 때문에 별개의 하위 범주로 연구되어 왔으나, {-이-}계 접미사에 의한 사동과 피동의 분포가 거의 동일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동과 사동의 공통성에 주목하는 논의 또한 등장하였다. 양동휘(1979)에서는 같은 형태소의 의미 특성의 차이와 사동주 주어의 여부에 따라 사·피동을 구분하고 있으며, 박정운(1994)은 피동문을 타동적 사동 구문에서 발달되어 {-이-}가 다의성을 갖게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상의 사·피동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국어의 사동과 피동을 태(態)로서 문법 현상으로 기술하려는 입장

1) 즉 '-이', '-히', '-리', '-기'와 같은 접사 중에서 어떠한 것이 결합하여 파생형태를 만드는지에 관해서도 규칙적이지 않다. '죽다-죽이다', '익다-익히다', '날다-날리다', '웃다-웃기다'와 같은 형태적 차이를 규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과 동사의 한 종류로서 기술하려는 입장이 구분된다. 사동문의 경우 장형 사동과 단형 사동을 동일기저로 설정하는 입장에서는 단형 사동 또한 변형 규칙에 의해서 도출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피동의 경우 변형 규칙에 의해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변형된다는 입장과 파생 규칙에 의해 피동사가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다는 입장으로 대별되고 있다. 또한 국어의 사동과 피동의 형태가 동일함을 고려하여 사·피동의 공통성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한 연구도 있다.

이상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하였다. 첫째 국어의 사동과 피동이 구분되는 것인가? 둘째 사동과 피동이 문법 차원의 문제인가, 아니면 어휘 차원의 문제인가? 만일 사·피동을 만드는 파생접사 [+CAUSE]나 [+PASSIVE]가 상위문의 술어로 심층에 존재한다면 국어의 사·피동문은 문법 차원의 규칙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반면 파생접사가 결합된 형태로 사피동 술어가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다면, 이는 문법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살다'에 '-리'가 붙어 파생된 '살리다'의 경우, 타동사로서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층위에서 통사적 규칙을 적용받을 필요는 없게 된다. 반대로 사·피동 접사가 위의 그림과 같이 [+CAUSE]나 [+PASSIVE]와 같은 자질을 갖으면서 문장 생성에 참여한다면 이는 문법층위의 요소로 볼 수 있다. 셋째 국어의 사동과 피동을 처리하는데 있어 실어증 환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상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어증 환자들이 국어의 사·피동을 처리하는 양상을 비교·검토하였다. 특히 국어의 사·피동이 문법적 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휘적 차원의 문제인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실험

방법 피험자

본 연구에서는 총 네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험을 하였다. 네 명의 환자는 명칭성 실어증, 표현성 실어증, 이해성 실어증, 전반 실어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칭성 실어증 환자 SDK는 1998년 8월 1일 갑자기 발생한 우측 편마비와 실어증으로 응급실을 통해 내원하였다. 발병당시 촬영한 뇌자기공명영상(MRI)에서 중심 반란원, 뇌실주위 백질, 미핵 두부, 내포의 전방, 기저핵, 측두엽 전방에 광범위한 급성 뇌경색과 함께 출혈성 전이(hemorrhagic transformation)가 함께 발생한 소견을 보였다. 환자 SDK는 1998년 8월 12일 한국어판 Western Aphasia Battery (WAB)을 이용해 1차 언어평가를 시행한 결과, 경피질성 감각 실어증(transcortical sensory aphasia)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1998년 9월 1일 시행한 추적검사에서는 경도의 명칭성 실어증으로 진단되었다.

표현성 실어증 환자 KTS는 환자는 59세의 오른손잡이 대졸 남자로서, 양측 대뇌 피각(putamen)과 뇌실주위 백질부의 뇌경색으로 경회회료원에 내원하였다. 환자는 급성기 치료 후 1998년 12월 15일에 1차로 보스톤 실어증 진단검사(The Boston Diagnostic Aphasia Examination)를 실시한 결과 전반성 실어증(Global aphasia)으로 진단되었다.

이해성 실어증 환자 JYS는 1998년 9월 27일 갑자기 발생한 의식저하와 언어장애를 주증상으로 한 뇌졸중으로 입원하여 치료하였다. 발병당시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 촬영(MRI)에서는 좌측 대뇌반구 중 중뇌동맥의 하부 분지에 의해 혈류공급을 받는 대뇌피질 영역에 고신호강도(high signal intensity)를 보여 급성 뇌경색의 소견을 보였다. 뇌경색으로 인해 손상이 나타난 부위는 좌측 외측 뇌실(lateral ventricle)의 후각부(posterior horn)에서 후방부 측두엽 피질까지 주로 경색이 나타났으며, 두정엽의 후하방과 측두엽의 후상방에 해당하는 각회전(angular gyrus) 주변까지 침범하는 소견을 보였다.

환자 JYS는 1998년 11월 15일에 1차 보스톤 실어증 진단검사 (The Boston Diagnostic Aphasia Examination, BDAE)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서 전형적인 이해성 실어증 (Wernicke's aphasia) 환자로 판별되었다. 이후 1999년 7월 7일 추적 시행한 보스톤 실어증 진단검사에서는 유창성에 비해 청각적 이해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이해성 실어증의 양상을 보였다.

전반성 실어증 환자 PSB는 59세의 오른손잡이 대졸 남자로서, 1993년 8월 29일 발병 2일 후 촬영한 뇌컴퓨터 단층촬영상 좌측 피각과 뇌실주위 백질 부위 출혈 소견을 보여주었다. 환자는 급성기 치료 후 1998년 12월 15일 1차 보스톤 실어증 진단검사(The Boston Diagnostic Aphasia Examination)를 실시한 결과 전반성 실어증(Global aphasia)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1999년 7월 8일에 실행증 진단 검사(ABA)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구강 실행증은 없어졌으며 언어 실행증은 mild to moderate등급이었다.

실험 재료

실험에 사용한 자료는 총 80개의 문장이다. 이를 set1과 set2로 나누어 각각 40개씩 환자에게 제시하였다. 40개의 문장 중에서 19는 피동형, 21개는 사동형으로 쓰였다. 실험에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7) ㄱ. 윤희가 강아지를 (문다, 문히다)
 ㄴ. 강아지가 (문다, 문히다)
- (8) ㄱ. 꼬마가 (올다, 올리다)
 ㄴ. 엄마가 아이를 (올다, 올리다)

위의 문장을 읽고 환자에게 괄호 속에 있는 용언(예. 문다/문히다) 중에서 적절한 형태를 고르게 하였다. 이 중에서 동일한 용언이 한 set에서 두 번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set1에서 능동형이나 주동형으로 쓰인 것(7-ㄱ), (8-ㄱ)은 set2에서 피동이나 사동형(7-ㄴ), (8-ㄴ)으로, set1에서 피동이나 사동형으로 쓰인 것은 set2에서 능동이나 주동형으로 바꾸었다.

실험 절차

실험과제는 단어 채워 넣기 과제(word completion task)를 사용하였다. 환자는 총 80개의 문장을 읽고 문장에 어울리는 용언의 형태를 선택하였다. set1에서 40개의 문항, set2에서 40개의 문항이 제시되었으며, 각 set는 일주일 간격으로 시행되었다.

실험 결과

19개의 피동형과 21개의 사동형을 각각 분석하였다. set1과 set2에서 모두 맞은 항목, 그리고 하나의 set만 맞은 항목 중에서 비변형과 변형이 틀린 항목²⁾, 그리고 변형과 비변형 모두 틀린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환자들의 결과는 표1에 제시하였다.

| | 정 | 오 | | | 총계 |
|--------|---------|---------|---------|--------|----|
| | | 변형 | 비변형 | 틀림 | |
| 전반성PSP | 19(47%) | 14(35%) | 3(8%) | 4(10%) | 40 |
| | | 21(53%) | | | |
| 이해성JYS | 27(67%) | 6(15%) | 5(13%) | 2(5%) | 40 |
| | | 13(33%) | | | |
| 명칭성SDK | 32(80%) | 2(5%) | 6(15%) | 0(0%) | 40 |
| | | 8(20%) | | | |
| 표현성KTS | 20(50%) | 5(12%) | 11(28%) | 4(10%) | 40 |
| | | 20(50%) | | | |

표1. 사피동 정오 분석

표1을 통해 전반성 실어증 환자 PSP과 표현성 실어증 환자 KTS가 사피동을 처리하는데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환자 PSP의 경우 변형태에 오류가 많은 반면, 환자 KTS는 비변형태에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 또한 명칭성 실어증 환자 SDK나 이해성 실어증 환자 JYS의 경우 다른 환자에 비해서 오류가 현저하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사동과 피동으로 구분하여 표2와 표3에 제시하였다. 표2와 표3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2) 예를 들어 '날다'나 '눕다'와 같이 사피동 파생접사가 붙지 않은 형태를 비변형, '날리다'나 '눕히다'와 같이 사피동 파생접사가 붙은 형태를 변형으로 명명하였다.

| | 정 | 오 | | | 총계 |
|--------|----------|--------|--------|-------|----|
| | | 변형 | 비변형 | 틀림 | |
| 전반성PSP | 14(67%) | 4(19%) | 1(5%) | 2(9%) | 21 |
| | | 7(33%) | | | |
| 이해성JYS | 14(67%) | 3(14%) | 4(19%) | 0(0%) | 21 |
| | | 7(33%) | | | |
| 명칭성SDK | 21(100%) | 0(0%) | 0(0%) | 0(0%) | 21 |
| | | 0(0%) | | | |
| 표현성KTS | 13(62%) | 3(14%) | 4(19%) | 1(5%) | 21 |
| | | 8(38%) | | | |

표2. 사동 정오 분석

| | 정 | 오 | | | 총계 |
|--------|---------|---------|--------|--------|----|
| | | 변형 | 비변형 | 틀림 | |
| 전반성PSP | 5(26%) | 10(52%) | 2(11%) | 2(11%) | 19 |
| | | 14(74%) | | | |
| 이해성JYS | 13(68%) | 3(16%) | 1(5%) | 2(11%) | 19 |
| | | 6(32%) | | | |
| 명칭성SDK | 11(58%) | 2(11%) | 6(31%) | 0(0%) | 19 |
| | | 8(42%) | | | |
| 표현성KTS | 7(37%) | 2(11%) | 7(36%) | 3(16%) | 19 |
| | | 12(63%) | | | |

표3. 피동 정오 분석

전반성 실어증 환자 PSP는 사동보다 피동에서 오류를 많이 보였다. 특히 사·피동의 변형에서 오류가 가장 많이 보인다³⁾. 이해성 실어증 환자 JYS의 경우, 오류가 사동과 피동에 고루 분포한다. 반면 명칭성 실어증 환자 SDK의 경우, 사동에서는 단 하나의 오류도 보이지 않는다. 8개의 오류가 모두 피동형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피동형 중에서도 비변형 오류가 지배적이다. 마지막으로 표현성 실어증 환자 KTS의 경우, 사동형보다 피동형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피동에서 비변형 오류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피동의 비변형은 타동사로서 자동사에 비해 동사의 논항 정보 손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류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명칭성 실어증 환자의 결과를 통해서 국어의 사동과 피동은 서로 다른 문법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동

오류는 전혀 없는 반면, 피동 오류가 나타나 양상을 통해서 피동이 사동보다 어휘 차원의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명칭성 실어증 환자의 경우, 통사 처리에 문제가 없는데 반해, 어휘부에 저장된 단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동과 사동의 의미적 차이에 의해서 어휘부에 범주화되어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전반성 실어증 환자와 표현성 실어증 환자의 경우, 사동보다는 피동을 처리하는데 장애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반성 실어증 환자의 경우, 사·피동의 변형에서 지배적인 오류를 보이는 반면, 표현성 실어증 환자는 사·피동의 비변형에서 지배적인 오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처리 경향성을 통해서 국어의 사·피동의 변형과 비변형이 어휘부(mental lexicon)에서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표현성 실어증 환자가 비변형에서 오류를 많이 보인다는 점은 사·피동 파생접사가 문법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결과이다. 왜냐하면 표현성 실어증 환자의 경우, 문법소의 손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사·피동 파생접사가 문장의 심층구조에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라면, 표현성 실어증 환자에게 사·피동문 처리의 장애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명사구 이동, '에게/에 의하여' 성분, 피동사 형성 과정과 같은 규칙에 의해 피동문이 형성된다면 표현성 실어증 환자의 경우, 피동-변형에 장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피동 접사와 동사가 분리되어 어휘부에 저장(decomposition model)되어 있기보다는 결합된 형태(fullist model)로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종합논의

국어의 사·피동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사·피동의 형태, 통사, 의미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의 사·피동이 형태적 층위의 현상인지, 아니면 문법적 층

3) 피동의 변형은 피동접사에 의해 타동사가 자동사로 변환되는 경우를 말한다. 반대로 사동의 변형은 사동접사에 의해 자동사가 타동사로 변하는 경우이다.

위의 현상인지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영어의 경우 수동태는 능동태에서 일정한 통사적 절차를 밟아 형성된다. 이에 따라 능동태와 수동태가 체계적으로 대응을 이룬다. 그에 반해 국어의 피동사는 용언의 어간에 '-이', '-히', '-리', '-기' 등과 같은 파생접사가 붙어 형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파생법이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문법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국어의 사·피동 처리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어의 피동은 통사상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통사 처리에 장애를 보이는 표현성 실어증 환자의 경우, <피동-변형>의 오류가 <피동-비변형> 오류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또한 명칭성 실어증 환자의 결과를 토대로 국어의 사·피동 처리가 구분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사·피동 접사와 용언이 어휘부에 두 개의 독립된 형태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결합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사·피동의 처리 양상은 환자마다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데, 우선 전반성 실어증 환자의 경우 <피동-변형>의 오류가 지배적이었다. 반면 명칭성 실어증 환자나 표현성 실어증 환자는 <피동-비변형> 오류가 지배적이었다. 즉 '짓다', '안다' 등과 같이 피동접사가 붙지 않은 타동사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⁴⁾.

본 연구에서는 단일 사례를 바탕으로 국어의 사·피동 처리 양상을 다루었는데 후속

4) 황유미(2000)의 한국어 선어말 어미 처리에 관한 연구에서는 국어의 문법소인 존칭 선어말 어미와 시제 선어말 어미를 대상으로 실어증 환자가 처리하는 양상을 비교·검토하고 있다. 연구 결과 보충법에 의한 존대법은 단어 차원의 문제이고 '-시-' 삽입에 의한 존대법은 통사 차원이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론을 얻었다. 즉 국어의 사·피동이 통사 차원의 문제인가, 아니면 형태 차원의 문제인가에 대한 그 동안 국어학의 논란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국어의 사·피동에 관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개별 용언에 사·피동 파생 접사가 붙어 형성된 단어가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고, 이들 개별 단어가 가지고 있는 논항 정보에 따라 문장이 생성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연구에서는 표현성 실어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집단 연구를 기대해 본다. 또한 '-게 하다'나 '-어 지다'와 같이 문장 차원의 사·피동과 파생접사에 의한 사·피동을 구분하여 국어의 사·피동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김차균(1980), “국어의 사역과 수동의 의미.” 「한글」 168호.

김홍수(1998), “피동과 사동.” 「이익섭 선생 회갑논총」, 서울: 태학사.

남기심(1985), 「표준국어문법론」 탐출판사.

박양규(1978), “使動과 被動.” 「국어학」 7.

박윤미(1987), 「국어 피동유형에 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원임(1974), “使動法 記述 考察.” 「문법연구」 1.

서정수(1975), “-하-’ 사동형에 관하여.” 「언어와 문학」 1.

서정원(1990), 「국어 사동문의 사동성 정도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송석중(1977), “使動文의 두 形式.” 「언어」 3-2.

양동휘(1979), “국어의 피·사동 연구.” 「한글」 166호.

이정민(1973),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Indiana university 학위논문(범한서적).

진혜선(1989), 「국어 사동 유형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유미, 문영선, 정재범, 남기춘(2000), “한국어 선어말 어미 정보 처리 특성.” 한국 실험 및 인지 심리학회, 99년 겨울 학술대회 발표집.

Lee, K.D.(1975), “Lexical Causative in Korean.” *Language Research* 11-1.